

법 어

강정마을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 곳 제주에 주석하고 계신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법화종, 일붕선교종 등, 각 종단의 대표와 스님들, 그리고 신행 및 재가단체 대표들과 불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용왕대재를 성대히 봉행하게 되어 감사의 뜻을 먼저 전합니다.

늘 그렇듯이 또 한 해가 저무는 임진년의 세밑에 서 있습니다. 바람은 차고, 파도는 높고, 땅은 열고, 날은 추운, 기나 긴 동지선달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의 마음도, 먼 길을 찾아 온 우리들의 마음도, 겨울처럼 움츠려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다 내려놓으면 그 뿐인데, 무엇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안타까움을 더하게 합니다. 제주에서 가장 살기 좋았던 마을인 강정이, 오늘날 맞고 있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강정마을에는 백 개가 넘는 친목모임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문중끼리, 동문끼리,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때로는 같은 나이끼리, 같은 작목반끼리, 모임도 많아 함께 기쁘고 즐거운 일, 슬프고 속상한 일 서로서로 사이좋게 얘기 나누며 살아왔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사람 사는 모습이고 살아가는 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강정마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 사람은 노란 깃발이 펄럭이는 상점으로 가고, 또 한 사람은 하얀 깃발이 나부끼는 가게로 가고 있습니다. 서로 입장이 다르면 애경사도 함께 하지 않고 친목회, 동창회, 계모임, 종친회도 더 이상 열기 어렵다고 합니다. 마을 공동체는 금이 가고, 서로 나뉘어 갈등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다 강정마을과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사까족과 켈리야족 사이에 심각한 물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극심한 가뭄이 계속 되자 서로 먼저 로히니강의 물을 쓰겠다고 해서 벌어진 갈등이 마침내는 전쟁으로까지 치달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강물과 사람 중에 어느 쪽이 소중한습니까? 물을 위해 소중한 사람의 목숨을 버리겠습니까? 부디 싸우지 말고 한 마음이 되십시오. 서로 미워하면 결국 파괴와 상처만 남습니다.” 두 부족은 부처님 말씀에 큰 깨달음을 얻고 마침내 무기를 내려놓고 서로 화해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민들끼리는 화합해야 합니다. 이 강정마을이 존재하는 한 서로 얼굴을 맞대고 함께 살아야 할 이웃사촌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입장이 다르다고 반목하고 갈등한다면 부처님이 물으셨던 것처럼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강정마을 주민 여러분!

그리고 여기 모이신 사부대중 불자 여러분!

지금 이곳 강정마을에서 용왕대재가 열리고 있습니다. 용왕대

재는 어촌마을 전통행사인 ‘용왕제’와 불교 고유의 의식인 재(齋)가 결합된 오랜 전통의 의식입니다.

용왕대재는 어느 한쪽을 편들려고 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서로 다투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고, 반목과 갈등이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용왕대재를 통해 서로에게 향했던 미움을 내려놓고, 마음속에 깊게 패인 갈등의 골을 지우고, 한발 떨어져 차분하게 자신과 이웃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강정마을 주민 여러분!

그리고 여기 모이신 사부대중 불자 여러분!

옛날 강정마을의 모습으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이 먼저 마음을 내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보살의 얼굴을 되찾으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마음의 고충이 많으신데 또 이런 부탁의 말씀까지 드리니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마음이 앞서기도 합니다. 우리 불교계는 여러분의 어려운 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이 강정마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마하반야바라밀.

2012. 12. 13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